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28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하드캐리한 엔비디아

- 주요 지수 혼조: S&P500·나스닥 사상 최고 vs. 다우 -0.1%
- 이란 '새로운 제안' 속 유가 상승
- '빅 이벤트' 앞두고 AI·반도체 랠리 지속

Summary

미국 증시는 미·이란 종전 협상 교착과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며 혼조 마감함. S&P500 지수는 0.12% 상승한 7173.91, 나스닥은 0.20% 오른 2만4887.10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으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13% 하락한 4만9167.79에 마감하며 방향성이 엇갈림. 중소형주 러셀2000도 소폭 오르며 위험자산 선호 기조는 유지되는 분위기였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아 있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이 무산되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8달러를 돌파, WTI도 96달러대로 올라 인플레이션 재자극 우려를 키움.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전망치를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했고, 봉쇄가 7월까지 이어질 경우 120달러 가능성도 경고하는 등 에너지발 경기 충격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임.

미국-이란 협상

러시아를 방문 중인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미국측에 "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後 핵 협상"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참모진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3단계 협상 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협상의 첫 단계는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란 및 레바논과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측은 2단계로 넘어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에 집중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핵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그러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해협을 통과할 선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다"고 밝힘. 또한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미국-이란 간 추가 협상 기로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철강 생산 능력의 70%가 파괴된 후 66종의 철강 제품 수출을 5월 30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함. 이란은 세계 10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이번 수출 중단은 국제 철강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임. 시티그룹은 이란의 가스 기반 직접환원철(DRI) 공정이 기존 고로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함.

OpenAI: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궈밍치 애널리스트는 "OpenAI가 미디어텍, 퀄컴과 협력하여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자, 미디어텍 주가는 장중 최대 10%까지 상승하였고, 퀄컴은 장중 최대 8% 넘게 상승했지만 낙폭을 줄여 1% 상승에 그침. OpenAI는 2028년부터 자체 스마트폰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및 공급업체 선정은 2026년 말 또는 2027년 1분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함. OpenAI의 하드웨어 분야 진출은 애플의 가장 큰 경쟁 우위인 통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도전과 위협이 될 것이라는 시장 평가에 애플 주가는 1.3% 하락함. 한편, OpenAI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MS가 OpenAI와의 수익 분배를 중단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독점에서 비독점적으로 변경하는 것임. MS의 주가는 장 전 4% 넘게 급락했지만, 정규장에서는 강보합으로 끝남. 이번 개정은 양측이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각자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독립 선언'으로 평가됨. 단기적으로는 OpenAI가 비즈니스 확장과 자금 조달 면에서 더 큰 실익을 챙긴 것으로 평가됨. 다만 MS도 독점적 지위를 일부 내려놓는 대신 규제 리스크 해소와 비용 효율화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음.

케빈 워시 리스크

지난 금요일 미국 법무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상원 인준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나 시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케빈 워시 의장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측정에서 극단적인 가격 변동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연준 물가 정책의 핵심 지표인 'Core PCE'를 'Trimmed Core PCE'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시타델 증권은 "워시가 선택한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은 그에게 유리한데, 이는 팬데믹 관련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느린 대응을 비판했던 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고, 모건스탠리 역시 새로운 인플레이션 지표 도입, 정책 방향에 대한 지침 축소,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 추진 가능성은 "각 정책 회의 사이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한편 이날 발표된 달라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2.3으로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제조업 활동 둔화를 시사했으나, 향후 6개월 기대지수는 개선돼 경기 전망은 완만한 회복 쪽에 무게가 실림. 가격지표는 원자재·완제품 가격 지수가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강함을 보여줌. (다우 -0.13%, 나스닥 +0.20%, S&P500 +0.12%, 러셀2000 +0.04%)

특징종목

엔비디아, 시총 5조 2636억 달러

엔비디아 (+4.0%)는 AI 전환의 핵심 수혜주라는 인식 아래 네트워킹·소프트웨어·국가 AI 프로젝트 등으로 매출 다변화가 진행되며,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와 기관 매수 유입이 동반되어 강세를 이어감.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현금 환원이 기업 가치

재평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엔비디아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약 4천억 달러 이상의 잉여현금흐름(FCF)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를 통해 주주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테크 강세 속 차익실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6%)는 HBM4 양산과 엔비디아향 메모리 출하 확대, 2026년 HBM 공급 타이트 전망 등이 겹치며 AI 메모리 구조적 성장 수혜주로 재평가받는 흐름임. 알파벳 (+1.8%)은 분기 실적 호조와 대규모 AI 투자 계획, 자회사와의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 소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 스토리가 강화되며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차별화된 강세를 보이고 있음. ARM 홀딩스 (-8.1%)는 최근 급등 이후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집중되며 조정 국면에 진입, 특히 주요 주주의 지분 축소가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코히런트(-4.3%)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4.1%) 등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이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하락하며 1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의 종지부를 찍음.

부진한 실적 및 전망에 약세

도미노 피자 (-8.9%)는 1분기 매출·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미국 동일점포 성장률 부진, 국제 매출 감소가 겹치며 경기 민감 소비 업종에 대한 우려를 키움. 달러트리(-5.5%)는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과 2026 회계연도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약세를 보임. 이러한 모습은 패밀리 달러 매각 이후 수년간 지속된 매출 감소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어려운 거시 경제 환경 등이 기존의 펀더멘털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임.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 수요 부진, 공급망 우려 속 금리 상승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34로 전일 대비 3.8bp 상승하며(주간 0.1%대 상승) 중동 긴장과 물가 우려 속에 강세를 이어감. 영국 10년물은 4.98로 4bp 이상 올라 2008년 고점 근처에서 거래되고, 독일 10년물도 3.04로 3bp 넘게 상승하는 등, 브렌트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각이 주요국 장기금리를 동반 상향시킴. 반면 한국 10년물은 3.81로 0.4bp 하락했으나 주간 기준으론 0.12% 상승해 대외 금리와 에너지 가격 부담이 여전히 상단을 지지하는 모습임.

원자재 통화에 주목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인덱스가 98.49로 약보함으로 끝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제안 소식에 일부 되밀렸고, 유로/달러는 1.17로 소폭 반등, 달러/엔은 159.41로 소폭 상승해 BOJ 회의를 앞두고 약세 엔 기조가 이어짐. 위안화는 달러/위안 6.83, 원화는 달러/원

1474.34로 각각 일간 -0.1%대 강세를 보이며 달러 약세와 견조한 역내 펀더멘털의 영향을 받음. 한편, 도이치뱅크와 JP모건 체이스는 이란 전쟁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관련 통화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음. 두 기관 모두 노르웨이 크로네와 호주 달러를 추천하였는데, 에너지 판매 수익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들 통화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분쟁 발발 이후 크로네와 호주 달러는 각각 약 2.5%와 1% 상승하여 G10 통화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임.

유가 상승 지속

상품시장에서는 WTI가 96.68로 하루 2.4%, 주간 10.6% 급등하고 브렌트도 108.26로 2.8% 상승하는 등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가 에너지 공급 우려를 자극함. 이에 따라 인플레 헤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금은 4681.85로 -0.6%, 은은 75.49로 -0.2% 하락했고, 구리는 6.02로 소폭 약세, 반면 밀은 622.75로 2.4% 오르며 가뭄과 비료·에너지 비용 상승을 반영함. 전체적으로 유가 급등과 긴장 지속이 채권 금리 상방과 통화·원자재 변동성을 동시에 키우는 국면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